창립 취지문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창립 취지문

최근 스마트 폰, 스마트 태블릿, 스마트 TV를 선봉으로 한 스마트혁명이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20세기 후반 개인용 PC와 모바일 폰에서 시작된 정보통신 혁명은 진화를 거듭하여 이제 직장이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상 생활공간 곳곳에서 고속의 무선통신기술과 스마트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원하는 작업공간으로 이끌어주는 스마트워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것은 정보통신산업의 전통적인 가치가 과거의 첨단 하드웨어 기술 중심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중요시하는 인문주의적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일대 변혁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마트혁명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또 다른 시대적 요구와 합세하여 지금까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인간 생활양식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상상을 초월할 거대시장을 창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술 선진국에서는 스마트 혁명이 초래할 엄청난 富의 축제에 동참하기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전 세계 각국은 스마트그리드라고 하는 전력망 현대화에 국운을 걸고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IT 기술 접목을 통해 그린에너지 기반의 전력망 지능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스마트인프라 고도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시장선도 측면에서 볼 때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각 분야,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는 새로운 생각과 시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조적 신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중심적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국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미디어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 국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방송통신 융합기술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를 창립 하고자 한다. 본 학회는 학자와 연구자 그리고 산업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결집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자 하며, 과거의 틀과 장벽을 깨고 융합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고 개척하고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의 무대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본 학회는 스마트미디어 관련 산업의 진흥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이외에도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 11

_0414.indd 2 2012-05-11 12:01:16